

고구려 시대 영역도



출처 : 교학사 역사부도

광개토대왕서거 1,600주년기념 광개토대왕이 꿈꾼 나라

- 일 시 : 2012.10.28(일) 14:00~17:00
-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 청소년을 위한 역사 콘서트 다섯 번째 이야기 |

광개토대왕서거 1,600주년기념 광개토대왕이 꿈꾼 나라

| 사전 행사 | 사회 : 이찬우(전문MC), 한수빈(가람중학교)

- 광개토대왕비 탁본 체험
- 고구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보는 퀴즈 게임
- 고구려 고분벽화 2D, 3D복원 영상(동북아역사재단 제작)
- 대한민국의 꿈(반크 제작)

| 본 행사 | 사회 : 정용실(KBS 아나운서)

- 이야기 손님과 함께!
 - 장기창(KBS드라마 '광개토태왕' 작가)
 - 임기환(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금경숙(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 이세훈(반크 글로벌역사외교대사 4기 리더)
 - 최주희(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
- 함께 나누는 광개토대왕의 꿈!
 - 이야기손님과 객석 참가자들과의 이야기
-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느끼다!!
 - 축하공연 : 충주시립국악단 '우륵'

| 함께 하는 행사 |

- 3D 광개토대왕비 만들기
- 활쏘기 등 전통놀이 체험
- Photo-Zone에서 사진 찍기 - 역사콘서트에 다녀왔어요.
- 도서 선물 -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재미있는 한국사 이야기!
- 참가 소감 나누기 - 참관기를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려요.

재단 홈페이지 역사콘서트 메뉴에 게시 또는 E-mail : eduhistory@nahf.or.kr로 보내 주세요.

만나고 싶었어요! • KBS드라마 '광개토태왕' 작가 장기창



광개토태왕, 우리는 왜 그를 태왕이라 부르는가.

외세의 침략이 유난히 많았던 우리 민족의 역사. 그 중 유독 눈에 띄는 군주가 바로 고구려의 열 아홉 번째 왕 광개토태왕이다. 외침을 막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정복 전쟁을 벌인 왕. 우리 역사상 최초로 독자적인 연호 '영락' 을 사용한 왕. 고구려의 영토를 대륙까지 뻗치게 만든 왕.

오늘날 우리가 그를 '태왕' 이라 높여 부르는 까닭은 무엇인가. 늘 침략을 받아 오기만 한 역사에 대한 보상심리일 뿐인가. 이 드라마는 이런 의문에서 시작해 그의 일생과, 그가 세운 강한 고구려를 풀어내 보려 한다.

평생 동안 싸운 왕, 그가 싸운 이유는 무엇인가.

광개토태왕이 즉위할 즈음인 4세기 말, 고구려는 혼란스러운 정국이였다. 이제 막 국가의 기틀이 잡혀 가는 시기, 안으로는 건국 초기부터 실권을 쥐고 있던 귀족들은 왕권을 위협했고, 밖으로 중국 땅에는 새로운 강국들,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다투며 고구려를 위협했다. 남쪽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끊임없이 압박을 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 안에서 광개토태왕은 싸웠다. 막강한 경쟁국들과 싸워야 했고, 그런 전쟁을 위해 필요한 왕군을 두고 내부의 적과 싸워야 했다. 그리고 그 싸움이 개인적 야욕의 발로인지 내 나라 고구려에 대한 의무감인지 갈등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싸울 수 밖에 없었다. 더 많이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잃지 않으려는 생존의 투쟁이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이를 잃었으며, 가족을 지키지 못했고,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했다. 그 모든 것을, 일국의 군왕이기에 홀로 감내해야 했다.

수많은 싸움과 고난 속에, 광개토태왕은 자신이 싸워야만 했던 진정한 이유를 깨닫게 된다. 그 모든 것은 고구려 백성들의 생명, 안녕과 평화를 위한 열망이었다.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닌 백성들의 미래를 넓히는 것. 그것이 그가 싸운 이유였고 태왕이라 불리는 이유였다. 수많은 고뇌와 번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광개토태왕과 그의 고구려를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분단과 혼란의 시대를 사는 21세기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길이 될 것이다.

고구려 건국 신화를 전하는 여러 자료-광개토대왕비문, 모두루 묘지, 삼국사기, 동국이상국집, 논형(論衡) 등.

『광개토대왕비문』

옛적 시조(始祖) 추모왕(鄒牟王)이 나라를 세웠는데 (포은) 북부여(北夫餘)에서 태어났으며, 천제(天帝)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하백(河伯)의 따님이었다.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성스러운 …… 이 있었다(5字不明). (중략) 포이 나룻가에서 “나는 天帝의 아들이며 河伯의 따님을 어머니로 한 추모왕(鄒牟王)이다. 나를 위하여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이 무리를 짓게 하여라”라고 하였다. (중략) (이에) 왕은 홀본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를 디디고 서서 하늘로 올라갔다. 유명(遺命)을 이어받은 세자(世子) 유류왕(儒留王)은 도(道)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고, 대주류왕(大朱留王)은 왕업을 계승하여 발전시키었다. 17世孫에 이르러 국장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 18세에 왕위에 올라 칭호를 영락대왕(永樂大王)이라 하였다.

『모두루 묘지 - 모두루는 광개토왕대에 북부여방면에서 지방관으로 활약하였던 이였으며, 그는 광개토왕의 사후 장수왕대에 죽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하백(河伯)의 손자(孫子)이며 일월(日月)의 아들인 추모성왕(鄒牟聖王)이 북부여(北夫餘)에서 나셨으니, 이 나라이 고을이 가장 성스러움을 천하사방(天下四方)이 알지니 ……”

『삼국사기』권13 고구려본기 1 동명성왕(東明聖王)조

시조 동명성왕(東明聖王)은 성이 고씨(高氏)이고 이름은 주몽(朱蒙)이다. 추모(鄒牟) 또는 중해(衆解)라고도 한다. 이에 앞서 부여왕 해부루(解夫婁)가 늙도록 아들이 없자 산천에 제사를 지내어 대를 이을 자식을 찾았다. 그가 탄 말이 곤연(鯁淵)에 이르러서 큰 돌을 보고 마주 대하여 눈물을 흘렸다. 왕이 이를 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옮기니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금색 개구리 모양이었다. 개구리는 또는 달팽이[蝸]라고도 한다. 왕이 기뻐서 말하기를 “이는 바로 하늘이 나에게 자식을 준 것이다.”하고 거두어 기르고, 이름을 금와(金蛙)라 하였다. (중략) 금와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방 안에 가두었는데, 햇빛이 비추어 몸을 끌어당겨 햇빛을 피하였으나 햇빛이 또 따라와 비쳤다. 이로 인하여 아이를 임신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5승(升)쯤 되었다. 왕이 알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또 길 가운데에 버렸으나 소나 말이 피하였다. 나중에는 들판에 버렸더니 새가 날개로 덮어 주었다. 왕이 이를 가르려고 하였으나 깨뜨릴 수가 없어 마침내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 어머니가 물건으로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남자아이가 껍질을 부수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호걸다웠다. 나이 일곱 살에 영리하고 예사롭지 않아서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쓰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부여의 숙여에 활을 잘 쓰는 것을 주몽(朱蒙)이라 하는 까닭에 이것으로 이름을 지었다. 금와의 일곱 아들이 있어서 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 재주와 능력이 모두 주몽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맏아들 대소(帶素)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가 아니어서 사람됨이 또한 용감합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려우니 그를 제거할 것을 청하옵니다.”라 하였다. (중략) 왕자와 여러 신하들이 또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주몽의 어머니가 몰래 이를 알아차리고 알려주며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 한다.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찌 가지 못하겠는가? 지체하여 머물다가 옥을 당하는 것은 멀리 가서 뜻을 이루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였다. 주몽이 이에 오이(烏伊)·마리(摩離)·협보(陝父) 등 세 사람과 친구가 되어 가다가 엄사수(명사수라 고도 하는데 지금의 압록강 동북쪽에 있다.)에 이르러 건너려고 하는데 다리가 없었다. 추격해오는 병사들이 닥칠까봐 두려워 물에게 알려 말하기를 “나는 천제(天帝)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도망하여 달아나는데 추격자들이 좃으니 어찌하면 좋은가?였다.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으므로 주몽이 건널 수 있었다. 물고기와 자라가 곧 흩어지니 추격해오던 기병은 건널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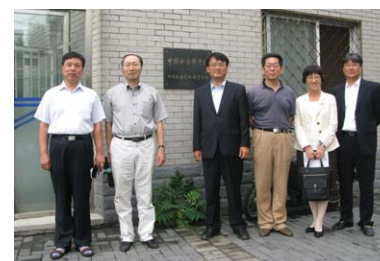
■ 고구려 건국신화의 의미

고대국가에서 건국신화가 갖는 의미는 역사적 사실의 반영을 뛰어넘는다. 시조에 대한 신화화를 통해 왕실과 계승자의 정통성,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배하에 있는 다양한 계통의 사람들을 결속시킬 수 있었다.

부여를 비롯한 고구려, 백제에서 동명신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된 동기는 동명(東明)이 당시 이들 사회 속에서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조신으로 숭배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삼국사기』에서는 ‘시조 동명’ 이니 ‘동명왕’ 이니 하는 표현만을 쓰고 있지만, 당시의 제의와 여러 가지 토속명칭을 기록한 중국의 사서인 『주서(周書)』 『북사(北史)』에서는 ‘高登神(登高神)’으로 지칭되었다. (중략)

고구려 건국신화는 조선 초기나 후기까지도 여전히 전해지지만 사회적인 양상에 의해 유교적인 가치관이나 질서 의식에 의해 변화가 이루어진다. 고구려 건국신화는 신화발생이후부터 우리 역사 안에서 여전히 변천하여 왔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고구려 건국신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고구려 건국신화를 고찰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역사와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11기 역사아카데미 자료집(고구려 건국신화, 광개토대왕비문으로 읽다/김경숙)에서 발췌



• 김경숙(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원)

고려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에서 한국고대사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구려사 전공으로 현재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고대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고구려 전기 정치사연구(공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다시 보는 고구려사(공저, 고구려연구재단, 2004)』,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동북아역사재단)』 등이 있다.

광개토왕이란 이름의 유명세와는 달리 그에 대한 기록은 극히 드물다. 다행히 그의 공적을 기록한 1,770여자의 비문이 전해지고 있어, 광개토왕 시대에 고구려가 성취한 세계를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다. 광개토왕의 최대의 성과는 ‘광개토’라는 이름 그대로 동서남북을 중흥무진으로 누비며 탁월한 군사적 성취를 통해 얻은 영역의 확장이다. 그는 즉위 전반에 백제전에서 거듭되는 승리를 거두었다. 그 승리는 단지 속적 백제를 압도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역관계로서 백제와 연결된 가야와 왜를 포함한 일군의 세력을 모두 제압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신라를 일종의 신속국으로 거느리게 되었다. 그리고 서방과 북방으로 발길을 돌려 비려, 동부여, 숙신, 후연을 공략하였다. 이러한 정복활동은 단지 영역의 확대에 그친 것이 아니다. 이전과는 다른 고구려의 세계와 공간을 재구성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념적으로 ‘천하관’의 구축으로 나타났다. ‘광개토’의 ‘토(土)’는 단지 땅만이 아니라, ‘천하’를 뜻하는 것이다. 천하관이란 곧 현세에 있어 국내외의 현실적인 정치질서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관념으로 고구려인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주변 세계에 대해 갖고 있는 세계관을 뜻한다.

■ 고구려의 대외 정복 활동

백제 영락 6년(396) 병신에 왕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백잔국을 토벌하였다. 잔주(殘主 : 백제왕)가 곤핍해져, 남녀 생구 1천명과 세포 천필을 바치면서 왕에게 항복하고, 이제부터 영구히 고구려왕의 노객(奴客)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태왕은 앞의 잘못을 은혜로서 용서하고 뒤에 순종해 온 그 정성을 기특히 여겼다.

신라 영락 9년(399) 기해에 백잔(百殘)이 맹서를 어기고 왜(倭)와 화통하였다. 왕이 평양으로 행차하여 내려갔다. 그때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어 아뢰기를, “왜인(倭人)이 그 국경에 가득차 성지(城池)를 부수고 노객(奴客:신라왕)으로 하여금 왜의 민(民)으로 삼으려 하니 이에 왕께 귀의하여 구원을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다. 태왕(太王)이 은혜롭고 자애로와 신라왕의 충성을 가늠히 여겨, 신라 사신을 보내면서 계책을 돌아가서 고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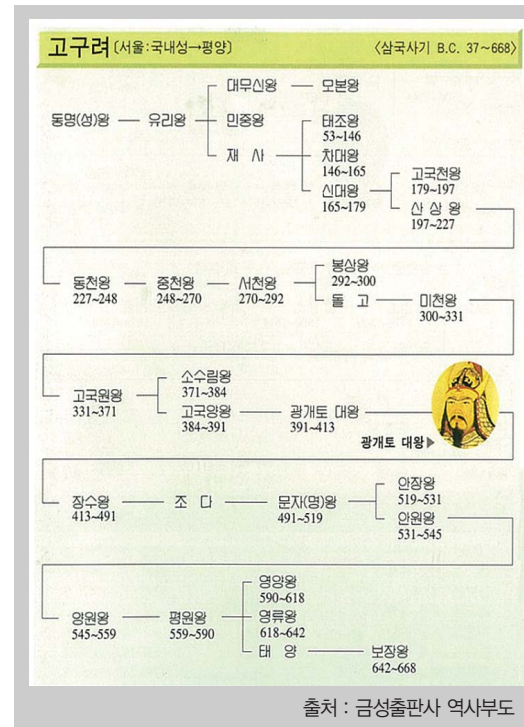
동부여 20년(410년) 庚戌, 동부여는 옛적에 추모왕의 속민(屬民)이었는데, 중간에 배반하여 조공을 하지 않게 되었다. 왕이 친히 군대를 끌고가 토벌하였다. 고구려군이 여성(餘城 : 동부여의 왕성)에 도달하자, 동부여의 온나라가 놀라 두려워하였다. 왕의 은덕이 동부여의 모든 곳에 두루 미치게 되었다. 이에 개선을 하였다. 이때에 왕의 교화를 사모하여 개선군을 따라 함께 온 자 ...

왜 14년(404년) 갑진에 왜(倭)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대방(帶方) 지역에 침입하였다. ... 왕의 군대가 적의 길을 끊고 막아 좌우로 공격하니, 왜구가 궤멸하였다. 참살한 것이 무수히 많았다.

비려 비려(裊麗)가 고구려인에 대한 ... 영락 5년(395) 을미에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였다. ... 3개 부락 600~700명(營)을 격파하니, 노획한 소·말·양의 수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영락17년조 17년(407) 정미에 왕의 명령으로 보군과 마군 도합 5만명을 파견하여 ... 합전(合戰)하여 모조리 살상하여 분쇄하였다. 노획한 갑옷이 만여벌이며, 그 밖에 군수물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고구려 역대 왕계표



광개토왕은 18세에 즉위하여 39세로 사망하기까지 불과 21년 재위하였다. 결코 길다고 볼 수 없는 재위 기간임에도 역대 고구려의 왕 중에서 가장 눈부신 정복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고 기획한 야망을 실현하기에는 사실상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 한 시대의 기준이나 대규모적인 국가 프로젝트는 그리 쉽게 바뀌고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개토왕의 경우에는 그의 꿈과 이상을 이어갈 든든한 후계자가 있었다. 바로 장수왕이었다. 장수왕은 여러모로 그의 아버지 광개토왕과 대비되는 군주였다. 일단 장수왕(長壽王)이라는 왕호에서도 금방 알 수 있듯이, 광개토왕과는 달리 98세까지 장수를 누렸으며, 재위기간만도 79년에 이르렀다. 아버지 광개토왕의 뉘까지 살았다고나 할까. 그런데 이러한 장수왕의 장수는 고구려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실현 방식은 다르더라도 장수왕은 누구보다 아버지 광개토왕이 기획한 프로젝트를 가장 잘 이해하고 충실하게 계승한 둘도 없는 후계자였다. 사실상 광개토왕의 야망은 아들 장수왕을 통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11기 역사아카데미 자료집(광개토대왕비문에서 나타난 고구려의 천하관/임기환)에서 발췌



• 임기환(서울교육대학교)

경희대학교 사학과에서 고구려사와 한국고대사 관련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오랫동안 연구가 많지 않았던 고구려사 연구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는 동아시아사의 관점에서 한국 고대사를 구성하는 작업에 관심이 많고, 『삼국사기』 등 역사 자료를 문헌고고학적 방법으로 탐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공저, 웅진지식하우스, 2011)』, 『현장검증, 우리역사(공저, 서해문집, 2010)』, 『고구려 왕릉 연구(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09)』 등이 있다.